산불 집중기 봄철 '불 축제' 재정비 불가피

2023 제주들불축제 우여곡절 끝 어제 막 내려
막대한 예산 투입한 축제장 활용 방안도 과제
'불' 프로그램 취소 뒷북 결정·혼선 야기 비판

제주시가 주최한 2023 제주들불축제가 '불' 없는 들불축제로 12일 막을 내렸다. 25회째인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준비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국내 산불 영향으로 킬러 콘텐츠인 '오름 불 놓기' 등 불 관련 프로그램이 모두 취소됐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4일간 대부분 예정대로 치러졌으나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산불이 집중되는 봄철에 개최되는 들불축제에서 '불'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축제의 방향을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난 11일 오름 불 놓기가 사라지면서 주최 측이 집계한 이날 하루 입장객은 정상 개최했던 해와 비교해 3분의 1로 줄었다. 일부 방문객들은 축제의 백미로 꼽혔던 오름 불을 구경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축제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전국의 산불 위험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울리면서 안전을 위해 불 놓기를 취소한 게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축제 기간 행사장 주제관에서 열린 '축제 환경변화 대응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제주들불축제 발전 방안 포럼'에서는 환경을 고려하는 축제,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발표와 토론이 잇따랐다. 일부 토론자는 3~4월 두 달간 봄철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이어서 다음에도 오름 불 놓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월대보름이 있는 겨울철로 앞당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들불축제 일정을 초창기 정월대보름 전후에서 지금의 경칩 시기로 변경한 배경에 악천후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들불축제의 전신인 '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경우 강풍, 추위, 눈이나 비 날씨로 오름 불 놓기를 연기하는 일이 잦아지자 16회였던 2013년부터 명칭을 달리해 3월 초 경칩이 속한 주말로 기간을 옮겼기 때문이다.

들불축제는 '불' 콘셉트에 대한 점검만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비한 축제장 활용 방안 마련도 과제다. 올해만 해도 약 17억 원이 들불축제 단일 행사에 배정됐고 여기에 지난 10년간 축제장 시설 공사에 투입한 비용만 100억 원 규모다. 33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 2000년 이후 새별오름 일대를 축제장으로 고정하면서 제주시가 쏟은 예산이 적지 않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제 일정과 관련 "기상 상황을 고려해 봄철 축제로 바꿨는데 다시 정월대보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관광객들이 새해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들불축제장을 방문해온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새별오름의 의미를 담은 '별빛 축제' 등 축제장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지난 6일 상향 발령되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장 등이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8일 발표함에 따라 오름 불 놓기를 비롯해 불꽃 놀이, 달집 태우기 등 불을 주제로 한 들불축제 프로그램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9일 축제가 개막해 들불 불씨 채화 제례와 채화 불씨 퍼레이드 봉송까지 마친 상황에서 뒤늦게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지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선희·이상민기자

지난 11일 새별오름 광장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이 참여한 '제주 화합 전도 풍물 대행진'이 펼쳐지고 있다. 이상국기자

부동산·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

경찰, 전담수사팀 꾸려 5월말까지 집중키로

"범죄수익금 몰수하고 피해대금 회복도 추진"

온라인상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이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다른 물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는 등 허위매물 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경찰청은 허위매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민들의 필수 생활요소인 주택과 중고차 매물과 관련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을 유인해 사실상 물건을 강매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5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플랫폼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공개해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임대하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다시 중개·판매하는 행위, 침수차나 고장 난 차 등을 은폐·축소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3개 수사팀과 각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 불법행위를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후 적극 몰수·추징보전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주택 보증금과 중고차 매입대금 등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와 피해 상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 거래 시 주의 해야 한다"며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모 조합장 당선인 금품제공 혐의 입건

경찰, 자택 등 압수수색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조합장 당선인 A씨와 A씨 지인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A씨 등은 금품을 건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일보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상민기자

오름 불 질러 수천㎡ 태운 50대 구속기소

검찰 "정신질환으로 범행"

오름에 불을 질러 수천평을 태운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3시57분쯤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오름인 우보악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으로 임야 약 9000㎡와 건초 더미가 불에 탔다.

검찰은 A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스누출 추정 주택 화재

단독주택에서 LPG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불이 나 8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42분쯤 제주시 아라이동의 1층규모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작동하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됐으며 집안에 있던 가족들이 소방당국 도착 전 자체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현장 확인 결과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 호스 부분이 소실되고 가스레인지 레버를 작동하는 순간 발화된 점 등으로 보아 누출된 LPG 가스가 레버 스파크에 점화돼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차량 전도돼 2명 다쳐

제주도심에서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일 제주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21분쯤 제주시 일도2동 제주은행사거리 북측 도로에서 차량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도되며 40대 남성과 60대 여성 1명 등 총 2명이 차량 내부에 갇혀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2명 모두 이송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그랜드 보청기

입춘대길(入春大吉) 물가안정 大 이벤트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플래티넘 中 선택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서사라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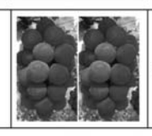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 · 판매 할 수 없고, (써니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도 타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접순 나눔(고접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 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2023년 4월 30일 까지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종자업등록번호: 18-서귀포-2005-20-01
한 라 종 묘
연락처 : 010-3696-2057

2023 고소득 추천 묘목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리스 이상)
감		감풍, 원추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를 많이 합니다.
엄나무		민엄나무 가시없는 엄나무	가시 없는 민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꽉 차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갑을농원 묘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25 / 농협 312-3121-7676-91(예금주:정조화)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엠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